

# 골절 등 환자 600여명 몰려 들어 '아우성'

## 광주 의료진 네팔 누와코트서 구호활동

### 주민들 무너진 집 인근에 텐트 치고 생활 마을 곳곳서 아직도 시신 수습작업 한창

지난 28일 대지진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 지역에 긴급 구호를 위해 출발한 광주시 긴급구호협의회 선발대가 지난 30일 1진을 보내왔다. 선발 대장으로 참여한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현지의 처참한 상황과 광주지역 의료진들의 구호활동을 정리했다.

광주시 긴급구호협의회 1차 구호팀이 네팔 누와코트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 29일 밤 11시(현지시간).

지난 28일 밤 10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태국 방콕을 경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이틀이 걸린 셈이다.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75km 떨어진 누와코트는 인구 22만명의 소도시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는 많은 구호단체와 의사들이 도착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어 누와코트를 구호 진료소거점으로 정했다. 다음날 눈을 뜬 구호팀이 본 마을 풍경은 난민촌 그 자체였다. 주민들은 무너진 집 인근에 간이 텐트를 만들고 생활중이었다.

누와코트 중심지에서만 800여명이 이번 지진으로 사망했고, 멀리 떨어진 마을 등에서는 아직도 시신 수습 작업이 한창이다.

광주시 긴급구호협의회 선발대는 누와코트 중심지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긴급 구호소로 정하고 첫날부터 진료활동을 시작했다. 1층 단층짜리 건물에서 여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선발대 숙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번 선발대로 참여한 서정성 원장을 비롯한 (사)희망나무 의료봉사팀 2명과 조수형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유영선 외과 교수, 김웅희 정형외과 교수, 간호사 등 조선대병원 의료봉사단 7명은 30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밀려드는 환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대부분 지진 외상 환자들로 소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날 하루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치료와 진료를 한 환자들



서정성 원장

누와코트 중심지에는 종합병원(우리나라 소형병원 규모)이 한 곳 있지만,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광주 의료진을 찾았다. 그 곳 병원에는 부탄 의사 60여명이 구호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하루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치료와 진료를 한 환자들

어림잡아 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곳 주민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식수와 식량 부족이고, 매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

서 원장은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사정도 불안한 지진 피해 현장에서 밀려드는 환자에 피곤함까지 쏟아지긴 하지만, 함께 하는 조선대병원 의료진들의 열의 넘치는 얼굴에서 희망을 보며 힘을 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상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이날 네팔 돕기 구호성금으로 5000만원을 기탁했다. 최 회장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식량과 식수 등의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구호성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채희중·최권일 기자 chae@



지난 30일 네팔 누와코트 중심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광주시 아시아 재해 긴급구호협의회 구호소에 지진 외상을 입은 많은 현지인들이 줄을 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김웅희 교수가 지진으로 손이 크게 찢어진 5세 여자 아이의 손을 꿰매는 모습. 그 옆에서 아이 어머니가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다.



광주시 긴급구호협의회 제공

## 호남 가거도-영남 독도 주민들 화합 다진다

### 경북도청서 영호남 '국토 끝섬' 교류 실무협

호남의 가거도와 영남의 독도 주민들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화합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0일 “전남도와 신안군, 경북도와 울릉군이 지난 30일 경북도청에서 영·호남 국토 끝마에 있는 섬 주민 교류와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안군과 울릉군은 국토 최동단인 독도와 최서단인 가거도 섬 주민이 교류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두 지자체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교환

방문하며 지역특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도 영유권 확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서화합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동서화합 포럼’에서 선정한 전남·경북 상생협력과제 중 하나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등록상 주민은 신안군 가거도는 497명, 울릉군 독도는 30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 교류해 영·호남 상생 화합과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 25년 묵은 전남 수자원보호구역 일부 풀리나

### 정부, 道요청 바다규제 해제 검토

25년 해묵은 바다와 관련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규제 개혁 골자토론회”를 통해 요청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비롯해 수산업 해안지역 관광개발의 걸림돌이었던 바다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부처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531㎢로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 등의 재산권 행사 피해를 받고 있다. 또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 대부분이 포함돼 있어 해양관광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안 오염 우려가 없는 공공수처리구역 및 관광단지 개발 대상지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기

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해양수산부의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구역 조정안을 마련해 시·군별로 관리계획 변경 용역 수립 후 관계부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경 일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또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수처리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수처리

가 될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숙박시설, 음식점 건축을 허용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장 면적 확대 허용, 어촌계 설립 기준 완화, 선박 제조업 조달입찰 참가 자격 개선 등 전남도가 요청한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검토중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KTX 개통 한달도 안됐는데 송정역 비좁고 주차시설 부족

# 광주시-코레일-철도공단 “네 탓” 공방

광주시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이 호남선KTX 개통 한 달도 안돼 비좁은 역사와 부족한 주차장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송정역(광주일보 4월 29일자 1·3면) 실태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만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선KTX 개통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의 첫 도시 이미지마저 실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광주송정역사를 설계·시공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30일 “광주 송정역사는 송정

역복합환승센터와 하루 이용객(1만2500여명)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신축됐다”면서 “비좁다는 민원이 발생한 대합실도 홍보관을 없애고, 복합환승센터가 신축되면 여유 공간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증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역인 만큼 주차장을 늘리기보다는 대중교통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호남선KTX)개통전부터 광주시에서 이 같은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는데도, ‘열차시간이 나오면 대책을 세우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미뤄놓고선 이제 와서 우리(공단)에게 책임을 돌리

려 하고 있다. 광주를 제외한 타지역은 KTX 출발, 도착시간에 맞춰 대중교통을 집중 배차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특히 “타 역에서도 오픈 초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지만, 일정시간이 지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이용객은 감소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주차장 증축이 꼭 필요하다면 광주시나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포항역과 광명역도 각각 포항시에서 400면, 코레일에서 1000면의 주차공간을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철도시설공단 건축설비처장은 “애초 송정역사는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건립될 계획이었다”면서 “광주시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환승센터 건립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자 지난 2012년 5월 22일 갑자기 송정역사 우선 건설을 요청해 왔고 이후 설계기준에 맞게 건설했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국토부, 철도시설공단에 송정역사를 비롯한 주차장이 협소하게 지어진 만큼 증축 등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송정역 설계 당시 기본 자료가 된 용역 내용 중 광주도시 한데도 20~30%대로 과다책정해 주차장 면적 등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인근 전북 익산역 주차장도 500면이 넘는다. 행정성 차원에서라도 국토부 등에 증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양만권에 英 애버딘大 하동캠퍼스 설립 가시화

### 광양만청, 국비 42억 지원받아

광양만청 내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 캠퍼스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광양만청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은 지난 30일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영국애버딘대학교 하동 캠퍼스 설립과 관련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공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광양만청은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해양플랜트 기술연구와 교육 기관, 관련 산업체가 결합된 해양플랜트 산업 종합클러스터 구축(RDE&P)을 목표로 하고 클러스터의 핵심인 영국 애

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광양만청은 올해 산업부로부터 설립준비비 6억원(지방비 6억 별도)과 함께 설립 이후 4년간 초기운영비 36억원(매년 9억원) 등 모두 4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는 201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학석사과정과 MBA석사과정, 공학박사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매년 신입생정원은 145명(공학석사 100명, MBA 25명, 공학박사 20명), 학생교육과는 별도로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매년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ICL을 이용한 시술/초점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레이즈를 니버비전 인레이

부작용: 수술 초기 아찔 빛반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